

금기화소(禁忌話素)를 중심으로 한 「장자뭇」 설화의 교육 내용 연구

전 한 성 (동국대)* · 민 지 훈 (대일외고)**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장자뭇」 설화의 교육 내용 구성 |
| 2. 금기화소와 고전교육 | 4. 결론 및 제언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금기화소(禁忌話素)’를 중심으로 한 「장자뭇」 설화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다. 먼저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장자뭇」 설화를 가르치기 위해 고전 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장자뭇」 설화의 교육 내용을 지식, 경험, 태도, 수행 영역의 범주에서 체계화하였다. 지식 범주에서는 학습자가 ‘금기화소’의 개념과 특징을 금기 언어의 형식을 통해 습득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경험 범주에서는 ‘금기화소’의 기의인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갈등 양상’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태도 범주에서는 지식과 경험 범주에서 다룬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연관하여 주체적인 태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수행 범주에서는 학습자가 「장자뭇」 설화에 나타난 ‘금기화소’가 연표화되는 과정의 원리를 이해

* 제1저자,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전임연구원

** 공동저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장자뭇」 설화를 체계적으로 내용화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전통 문화의 계승 및 창달이라는 국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금기 화소, 위반, 장자뭇 설화, 고전 교육, 내용론, 지식, 경험, 태도, 수행

1. 서론

설화(說話)는 자연적이고 집단적인 발생의 특징을 보이며, 그 내용은 서민적이면서도 민족적이어서 한 민족의 생활관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이야기는 풍부한 상상력에 근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서사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까닭에 설화는 다층적인 원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사람들의 세계인식의 정수 내지 총화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신동훈, 2007: 417). 이 때 설화 속에서 인식적 의미를 집약하고 있는 서사요소가 바로 화소(motif)이다. 설화의 화소는 이야기를 통한 세계인식의 출발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주요 화소들에 담긴 세계 인식의 양태를 읽어내는 것은 우리네 인간의 삶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설화의 화소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금기화소(禁忌話素)’이다. 금기라는 용어는 위반의 명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써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가 느끼는 치명적이면서도 매혹적인 화소로, 이를 축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 구비설화에 내재되어 있다(김혜정, 2008: 441). 특히 일상생활이나 자연현상, 동물이나 식물, 생로병사 등에서 금기로서 발화되는 금기어는 시대적·문화적 산물로서 한 사회의 삶의 형태이자 의식의 산물인 언어·문화 현상을 잘 나타내준다(심재숙,

2013: 686).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장자못」 설화의 교육 내용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장자못」 설화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유형의 광포(廣布) 설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각 편이 구전되어 오고 있다.¹⁾ 이 설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금기의 위반에 담긴 비극과 홍수가 가진 신화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²⁾ 여기서 더 나아가 금기와 위반에 따른 결과로 돌이 된 여성이 신성성을 획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각도로 해석을 시도하거나 금기화소에 얹힌 세계인식의 층위를 밝히는 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생산되었다.³⁾ 이는 「장자못」 설화가 인간 존재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풍부한 이야기 화소를 지니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언어가 사회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우리의 언어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일을 감당하는 국어교육의 차원에서도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진로선택’으로 <고전읽기>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 과목의 교육과정 성격 부분에서는 고전을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고전읽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필요한 지혜와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중·고등학교에서는 「장자못」 설화에 나타난 금기화소를 통해 우리네 언어형식과 그 이면에 담긴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화적 보편성을 학습자들에게 보다 심층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언어

1) 김혜정(2008: 443)에 따르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만도 60여 편 가량의 각 편이 보고되어 있으며, 여타 자료집을 포괄할 경우 각 편 수가 100편을 상회한다고 한다.

2) 금기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래옥(1981), 장장식(1985), 강봉근(1999), 김선자(1999), 김혜정(2009) 등이 있고, 홍수의 신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권태효(1998), 이주영(2011) 등이 있다.

3) 「장자못」 설화에서 여성의 돌아봄에 주목한 논의는 오정미(2015), 금기화소에 얹힌 세계인식의 층위를 밝힌 연구로는 신동훈(2004) 참고.

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안하는 일은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고전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은 국어를 교육하는 일이며, 그 내용의 틀은 국어 교과 자체의 특질인 ‘언어’의 속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⁴⁾ 둘째,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문화 계승 및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고전 교육의 내용을 구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소속된 공동체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며, 한국의 언어문화를 창달하는 일은 국어교육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⁵⁾

본고에서는 「장자뭇」 설화의 서사적 근간(根幹)이라 할 수 있는 ‘금기화소(禁忌話素)’에 함의된 금기어의 언어적 발화 형식 및 언어문화 현상으로서의 특징을 밝힌 뒤, 이를 토대로 「장자뭇」 설화의 심도 있는 감상과 국어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지식, 경험, 태도, 수행의 차원에서 마련해보고자 한다.⁶⁾

2. 금기화소와 고전교육

2.1. 금기화소의 교육적 가치

텍스트 차원에서 설화에 나타난 화소의 상징을 이해하는 일은 그 설화의 주제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⁷⁾ 텍스트 차원에서 해당 설화의

4) 김대행,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b.

5)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과제」, 『청람어문교육』 제25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2a.

6) 「장자뭇」 설화의 교육 내용을 지식, 경험, 수행, 태도 차원에서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은 고전교육이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국어교육의 내용체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이다. 국어교육의 내용체계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기존 학계의 연구담론을 상정해볼 때 지식차원, 경험차원, 수행차원, 태도차원에 서 그 내용을 구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제를 파악하는 일은 그 작품의 서사 구조의 이해를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최소 단위인 화소가 의미하는 바 또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은 하나의 효과적인 읽기 방법을 획득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수많은 구비설화에 내재되어 있는 ‘금기화소’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고전 텍스트를 읽는 하나의 방법을 획득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민족의 금기와 위반의 심리를 이해하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 보편적인 사유와 정신을 배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김혜정(2008: 447)은 설화 내에서 ‘금기화소’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좌절시키는 도구로써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동훈(2004: 441)은 우리 설화에 나타난 ‘금기화소’는 삶의 결정적인 고비 또는 인생길의 고갯마루에 얽힌 내밀한 섭리를 계시하고 일깨워주는 것으로, 지난 삶을 받아들이는 길과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 사이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우리 고전에 나타난 ‘금기화소’는 단순히 이야기의 주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인간 존재의 고민 내지 삶의 방향에 대한 성찰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고전읽기>의 ‘1.성격’ 부분을 보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고전읽기>의 성격

‘고전읽기’는 초·중·고 공통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고전을 읽으며 통합적인 국어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고전을 통해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어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필요한 지혜와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전은 인류가 유사 이래 성취한 정신적 걸작으로, 고전에는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고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넘어 보편성을 획득한 사유와 정신이 담겨 있다. 또한 고전은 글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감동을 지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며 인류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 7) 물론, 주제를 파악하는 일은 작가, 텍스트, 독자의 차원에서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텍스트 차원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화소의 상징을 파악하는 일이 하나의 효과적인 읽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소중한 바탕이 된다.⁸⁾ ‘고전읽기’에서 학습자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문학 등 다양한 고전과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을 형성하고, 학문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 수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고전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을 기르고, 고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과 논술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을 갖추며, 국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전은 우리 인류가 유사 이래 성취한 정신적 산물로, 여기에는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보편성을 획득한 사유와 정신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구비설화에 내재해 있는 ‘금기화소’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핵심적 이야기 요소이다. 고전이 여러 분야의 진로에 필요한 지혜와 소양을 함양하고 통합적인 국어능력을 기르는 과목임을 전제해 볼 때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고전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네 언어형식인 금기화소를 매개로 하여 고전 텍스트에 대해 다양한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고전 교육은 국어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의 교육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연구 및 실천을 통해 합의된 국어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개인의 언어적 성장’, ‘언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범교과적 도구성’, ‘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해’, ‘언어문화 유산의 계승’ 등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⁹⁾ 이 가운데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고전 교육의 의의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해’, ‘언어문화 유산의 계승’ 차원에서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8) 밑줄은 필자가 2.2장의 논의를 위해서 임의로 친 것임을 밝힌다.

9) 국어교육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대행(1997), 『국어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정어문』 2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참조.

먼저, ‘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해’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학습자는 「장자못」 설화에 나타나는 금기화소를 기호학적 관점을 통해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기화소가 지닌 기의를 읽어낼 수 있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주변의 언어 소통 현상에서 나타나는 금기화소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 기의를 읽어낼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도모할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언어문화 유산의 계승’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문화적인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언어문화를 능동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기화소는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우리 고유의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언어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는 금기화소를 활용하여 국어 표현 능력의 원리로 가르칠 수 있으며, 이는 언어문화 유산의 계승이자 창달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¹⁾

10) 김대행(1997: 17), 「국어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 2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참조.

11) 김대행(1995)는 이를 ‘고전표현론’이라 명명한다. ‘고전 표현’과 관련된 연구는 ‘고전 이해’의 측면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본질적, 방법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여기에는 이지호(1997),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 방법론 연구 : 〈열하일기〉의 대상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염은열(1999),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희정(2002),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재우(2004), 「전을 중심으로 한 전기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홍원(2008),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2.2. 금기 화소와 「장자뭇」 설화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고전읽기>의 ‘1.성격’에 나타난 ‘고전(古典)’이라는 용어에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첫째, ‘antique’의 개념이다. 이는 ‘시간의 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고전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둘째, ‘classic’의 개념이다. 이는 ‘antique’의 의미를 넘어 일정한 평가가 가미된 것이다. 오랜 시간의 평가를 견뎌낸 만큼 ‘일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canon’의 개념이다. 여기에는 ‘규범’, ‘표준’의 의미가 각인되어 있으며, “규범과 표준을 결정하는 평가의 ‘보편성’을 의심하는 비판적 맥락에서 선택되는 텍스트”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¹³⁾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은 앞서 제시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고전읽기>의 ‘1.성격’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이라는 개념은 한 문화권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보존되는 텍스트의 총칭에 가깝다.

이렇게 ‘고전’의 세 가지 의미가 교육과정의 진술에 모두 포함된 이유는 고전을 객관적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공간적으로 오래된 텍스트와 현재의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양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⁴⁾ 고전의 개념을 ‘관계 양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이 세 가지 개념은 텍스트에 접근하는 ‘주체’의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중층적으로 혼합하여 작동하게 된다. 때문에 교육과정에 나타난 ‘고전’은 단순히 과거에 존재하는 물리적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매개하는 해석적 노력, 역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작용

12) 이는 조희정(2006: 63-64)에 제시된 ‘고전의 개념’을 참고하여 논의의 맞게 수정하였다.

13) 이 때 평가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합의된 가치가 아니라 여러 사회 문화적 권력이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는 곳”이라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John Guillory(1994: 300-325), 정정호 외 공역, 참조.

14) 조희정(2006: 65),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참조.

태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이와 같은 고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장자못」 설화의 교육 내용을 구성해 본다면, 먼저 고전 텍스트와 현재 학습자 간의 관계 양상을 매개할 수 있는 언어적 매개체를 고려해야 한다. 고전 텍스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과는 다른 시·공간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에 현대의 텍스트와는 구분되는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고전 텍스트와 현재 학습자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언어적 매개체 가운데 하나로 ‘금기화소’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금기화소가 언어형식 이면서 동시에 「장자못」 설화에 내재된 인식적 의미를 집약하고 있는 핵심 서사 요소이기 때문이다.¹⁶⁾ 장장식(1994: 85-107)에 따르면, 금기는 일정한 사물에 접근 및 접촉의 금지를 비롯하여 그 행위를 기피하도록 하는 언어 진술로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 모델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금기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지속적인 본성 가운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인지할 수 없고 해석하기 어려운 힘에 대한 공포의 심리적 반응을 언표화 또는 행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J. G. Frager(1977: 263-343)은 금기는 ‘행위’, ‘인물’, ‘사물’, ‘언어’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양한 인간 심성의 보편적 행위 양식이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행위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말로써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이나 표시로써 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금지의 말을 뜻하는 것으로, 행위 양식이 언어표식으로 고정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후자는 부정한 것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나 병을 막고 역신을 물리치기 위한 행위의 결과를 뜻한다.¹⁷⁾

이렇게 볼 때 우리 고전에 나타난 ‘금기화소’는 한민족의 고유한 언어형식

15) 박인기, 「독서 환경의 변화와 고전(古典)」, 『독서연구』 19, 한국독서학회, 2008, 27-28면, 참조.

16) 신동훈(2007: 417),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 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33집, 비교민속학회, 참조.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배(1975: 22-24), 『한국의 금기어·길조어』, 정음사, 참조.

이자 우리네 삶의 다양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장자못」 설화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기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언표화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마란다(E. Maranda)의 연구를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¹⁸⁾ 그는 금기를 내포한 민간 신앙어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회 안의 대립과 갈등의 중재 과정을 공식화한 레비스트로스(C. Lévisirau)의 $fx(a) : fy(b) \simeq fx(b) : f^{-1}(y)$ 이론(Claude Lévisirau, 1963)¹⁹⁾을 발전시켜 특정한 공동체 사회에서 통용되는 민간 신앙어에 적용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공식을 도출해낸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금기와 금기어의 관계 양상²⁰⁾

QS : QR : : FS : FR
QS : 상황 (Condition)
QR : 결과 (Result)
FS : 대응 행위 (Counteraction)
FR : 대응 행위의 결과 (The Result of the counteraction)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QS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가리킨다. QR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빚어질 예상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FS는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인물의 특정한 대응 행위를 가리킨다. 끝으로 FR은 인물이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대응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18) E. Maranda & P. Maranda(1971), Structural models in folklore and transformational Essay, The Hague : Mouton.

19) a와 b는 항목을, x와 y는 기능을 뜻한다. 항목이란 사회적 맥락에서 주어진 상징들로서, 작중 인물이나 주술적 물건처럼 행위할 수 있고,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이다. 반면 기능은 이러한 상징들에 의해 수행되는 구실을 말한다. Claude Lévisirau(1963: 228), Structural Anthropology, New York : Penguin Books, 참조.

20) 여기에서 QS는 Quasi-Solution, QR은 Quasi-Result, FS는 Final-Solution, FR은 Final-Result를 의미한다. E. Maranda & P. Maranda(1971: 82), Structural models in folklore and transformational Essay, The Hague : Mouton, 참조.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해 보면, 금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기란 ‘특정 상황(QS)에 대한 예견된 결과(QR)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대응 행위(FS)를 강구함으로써, 예견된 결과를 전환시켜 새로운 결과(FR)를 맞으려는 언표 행위’인 것이다.²¹⁾

[표 2] 금기어의 발현 양상

(가)
①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도둑놈 된다.
② 밤에 손톱을 깎으면, 해롭다.
③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명이 짧아진다.
(나)
①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마라.
② ‘밤에 손톱을 깎지 마라.
③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라.

위의 (가)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금기는 어떤 필연적 또는 심리적 이유나 근거로 경계와 주의를 주고 금지나 기의(忌意)를 일으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언어표식들이다. 또, 조건절의 행위(QS)가 결과절의 부정적 전망(QR)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나)와 같이 금지문형으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다.²²⁾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수설화 중에 하나이자, 「소동과 고모라」 유형의 세계적 분포를 보이는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장자못」 설화에 나타난 화소(motif)도 이러한 정의에 따라 금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자못」 설화는 고승을 박대한 한 인색한 부자가 그로 인해 파멸을 당하고, 그 고승에게 시주를 한 며느리는 난을 모면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21) 장장식(1994: 90-107), 「풍수설화에서의 금기 원리와 상징적 의미 : 풍수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 4, 한국민속학회, 참조.

22) 금지문의 형태로 변형이 불가능한 민간 신앙어는 금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예로 ‘개미떼가 이동하면, 비가 온다.’의 민간 신앙어는 ‘개미떼가(를) 이동하지/이동시키지 마라.’와 같은 금지문형으로 변형할 수 없기 때문에 금기가 될 수 없다. 장장식(1994: 97-98), 「풍수설화에서의 금기 원리와 상징적 의미 : 풍수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 4, 한국민속학회, 참조.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도승은 며느리에게 집을 떠나되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는 언술은 ‘금기화소’가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뒤를 돌아봄으로써 며느리가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금기와 금기를 위반한 행위의 결과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직접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 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조사자 : 그러니까 그 애두 화석이 되구 명주도 화석이 됐습니까?] 예, [조사자 : 개두요?] 거름, 예,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그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 오다가 서 그 비스(비슷)하니 인지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거 같은 거 하구,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게두 있던 말야. (후략)²³⁾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금기는 “당신, 가다가 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금지문형으로 언표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금기가 어떻게 이야기의 중심 화소가 될 수 있는지 ‘마란다의 공식’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금기의 언표화 과정 :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QS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QR	돌이 된다.
FS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FR	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금기의 언표화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23)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2006: 367),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참조.

이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어떤 필연적 또는 심리적 이유나 근거로 경계와 주의를 주고 금지나 기의를 일으켜 특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이다. 또, 조건질의 행위(QS)가 결과질의 부정적 전망(QR)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라는 금지문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자뭇」 설화의 화소를 ‘금기화소’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된 ‘중심화소(main motif)’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⁴⁾

다음으로, ‘금기화소’를 활용하여 매개할 수 있는 해석 작용태, 즉 「장자뭇」 설화에 내재된 세계 인식의 층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화가 지니고 있는 구술성과 연행성은 근본적으로 설화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설화의 세계관은 전통을 지향하고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 설화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삶의 표현 방식은 이미 주어진 어떤 초월적 기의, 즉 설화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구술과 연행이라는 설화의 소통 양식인 것이다. 설화에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설화의 기의는 이러한 갈등에 대한 인간의 집단적 관념으로 나타난다. 설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인간의 존재와 근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늘 정답을 확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본성이 설화가 드러내는 세계관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²⁵⁾ 이를 「장자뭇」 설화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 설화에 나타난 ‘금기화소’는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때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갈등 양상은 신적 질서의 거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통과시험의 과정일 수도 있고, 자기희생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인생의

24) 물론 이 이야기가 ‘권선징악의 화소’를 담고 있으며, 이것이 이 설화의 중심 화소로 기능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한 머느리가 돌이 되었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위에 제시한 금기의 법칙을 고려해 볼 때, 고승을 박대한 부자가 화를 입는 내용은 ‘도움을 청하는 타인을 박대하지 마라’라는 사회적인 금기를 어긴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화에서 금기화소는 이야기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송효섭(1999: 40),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참조.

기로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자뭇」 설화의 ‘금기화소’는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갈등’이라는 ‘기의’를 수용자에게 구술과 연행을 통해 전달해 줌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본연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며, 나아가 이에 대한 수용자의 주체적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3. 「장자뭇」 설화의 교육 내용 구성

앞서 논의를 통해 ‘금기 화소’의 특징과 국어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르칠 내용을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안될 고전 교육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정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내용 설정 준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은 ‘언어’인 국어를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틀은 국어 교과 자체의 특질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²⁶⁾ 이 때 국어 교과 자체의 특질은 교육의 대상인 언어의 속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언어’는 ‘체계(system)’, ‘행동(behavior)’, ‘문화(culture)’라는 본질적인 개념과 ‘소통의 매재(媒材)’, ‘사고의 도구’, ‘문학의 질료’라는 기능으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다.²⁷⁾ 이러한 언어의 개념과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의 속성은 과제(task), 사실(fact), 정체성(identity), 의미(meaning)로 세분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국어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어 능력’은 바로 이 네 가지 속성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즉, ‘국어 능

26) 이용주(1995: 54),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본질과 비본질」, 『국어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대 출판부, 참조.

27) 김대행(2002a), 「국어교과학의 과제」, 『청람어문교육』 제25집, 청람어문교육학회, 참조.

력'이란 언어로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능력이며, 언어 경험을 통해 '의미'를 수용하고 부여하는 능력이고, 언어를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는 능력이며, 언어 구사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이다. 김대행(2002b: 24-25)에 따르면, 이러한 언어의 네 가지 속성은 각각 '지식', '경험', '태도', '수행'이라는 국어 교육의 내용 범주와 대응한다. 이를 국어 능력의 정의와 연관지를 경우, 국어 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국어교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국어교육은 우리 삶에 사실로서 존재하는 국어 현상이므로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국어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험과 반응을 통해서 '경험'을 심화시키고 질서화함으로써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기도 하다. 또한 국어교육은 정체성 형성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태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국어 능력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서의 국어이므로 언어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장자못」 설화의 교육 내용을 '지식', '경험', '태도', '수행'의 차원에서 구조화해 보고자 한다.

3.1. 지식범주

언어는 사실(fact)을 형성한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 언어현상이 지니고 있는 사실적 특성을 지식의 범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의 범주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인지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식의 범주로는 작품 형성의 역사적 맥락과 고전의 어휘를 탐색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언어의 체계로서 지식을 익히는 일이 국어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식을 익히는 일은 태도나 수행의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국어능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²⁸⁾ 이러한

28) 전한성(2008), 「이미지 활용을 통한 고전시교육의 내용구성 연구」, 『국어교육』 제

측면에서 금기화소로 나타나는 어휘나 말은 단순한 고어의 뜻을 헤아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어휘나 표현들이 고전 작품의 전반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파악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은 언어의 속성 가운데 사실(fact)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생성된 사실’이 되며, 이 자체가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교육의 장에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지식은 학문적 지식을 교육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인 ‘교수학적 변환(didactical transposition)’을 거친 산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²⁹⁾ 교육의 장(場)에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지식은 학문적 지식과 등치(等値)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에서 다루었던 금기화소의 개념 및 특징 전부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인 맥락 및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루어야 할 금기의 특징은 「장자묵」 설화의 내용 가운데 머느리가 뇌성벽력으로 인해 뒤를 돌아보면서 돌이 되는 장면이 금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으로 내용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금기의 정의인 ‘특정 상황에 대한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대응 행위를 강구함으로써, 예견된 결과를 전환시켜 새로운 결과를 맞으려는 신약적 연표’라는 것과, 세부적 특징인 ‘어떤 필연적 또는 심리적 이유나 근거로 경

126호, 한국어교육학회, 참조.

- 29) ‘교수학적 변환(didactical transposition)’이란 쾨바야르가 교육의 관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지식의 층위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쾨바야르는 지식을 학문적 지식(학자 중심), 가르칠 지식(교사 중심), 가르친 지식(학생 중심)으로 구분한 바 있다. 학문적 지식은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되기 이전에 학자들이 연구한 지식을 의미하며, 가르칠 지식은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교사들이 재조직한 지식을 의미하며, 가르친 지식(학습된 지식)은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구성된 지식을 의미한다. ‘교수학적 변환을 거친 지식’은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조직된 지식(가르칠 지식)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적인 상황 및 맥락이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공된 산물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김영택(2004:366),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국어교육학회, 참조.

계와 주의를 주고 금지나 기의를 일으켜 특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 ‘조건절의 행위가 결과절의 부정적 전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금지문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학습자에게 제공될 지식으로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지식 범주의 차원에서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표 4] 지식 범주의 교육 내용

◎ ‘금지’의 개념 알기 금기란 ‘특정 상황에 대한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대응 행위를 강구함으로써, 예견된 결과를 전환시켜 새로운 결과를 맞으려는 신앙적 언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사물에 접근, 접촉의 금지를 비롯하여 그 행위를 기피하도록 하는 언어 진술로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 모델을 담고 있는 말이다. 금기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지속적인 본성 가운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인지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힘에 대한 공포의 심리적 반응을 행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금기가 인간의 심성에서 발생하는 까닭에 사회 집단이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 ‘금지’의 특징 알기 - 어떤 필연적 또는 심리적 이유나 근거로 경계와 주의를 주고 금지나 꺼리는 마음을 일으켜 특정한 행동을 못하게 한다. - 조건절의 행위 또는 상황이 결과절의 부정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금지 문형으로 바꿀 수 있다. (예)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명이 짧아진다. →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라.	
QS(상황, 조건절의 행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QR(조건절의 전망)	명이 짧아진다.
FS(대응 행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않으면,
FR(대응 행위의 결과)	명이 짧아지지 않을 것이다.
금기의 언표화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라.

3.2. 경험범주

경험(經驗)은 언어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언어의 속성 가운데 의미(meaning)와 연관된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에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정서 상태에 이르는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stimulus)이 될 수 있다.³⁰⁾ 따라서 문학교육에서 경험 범주의 교육 내용은 문학을 통한 경험의 이해와 심화를 말하는 것으로, 문학 텍스트의 이해 차원을 넘어 수용자 자신과의 관련 속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 범주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장자뭇」 설화에 나타난 ‘금기 화소’의 기의인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경험일 것이다. 이 설화에서 여성의 돌아봄은 금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의 해석을 낳는다.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남기 힘들어서 고민 끝에 금기를 위반하였다는 일차원적 해석부터(박정세, 1996: 108), 여성이 금기를 위반하여 돌이 된 뒤 신성성을 얻게 된 것에 주목하면서 금기를 위반한 행위를 여성의 희생 또는 모성성의 극대화로 보는 해석(오정미, 2015: 161),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로 편입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도전으로 보는 해석(김혜정, 2009: 295), 지난 삶을 받아들이는 길과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신동훈, 2004: 441) 등 갈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험 범주의 교육 내용은 이러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르칠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금기 위반의 행위가 어떤 갈등 속에서 발생하였는지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보고, 이 일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을 불러오는지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공동체 측면에서는 여성의 개인적 욕망이나 세계관이 가족 또는 사회와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족의 삶과 지혜에 대해 돌아보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

30) 김대행(2002b: 24),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참조.

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금기의 언표화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해 보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기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경험이 일상의 경험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금기와 관련된 갈등의 경험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전환되며, 앞으로의 수업에서 다루게 될 지식이 학습자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식을 자신과 연관시켜 내면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경험 범주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표 5] 경험 범주의 교육 내용

◎다음은 강원도 영월에 전해지는 「장자못」 설화이다. 이 설화를 읽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장자못 설화

조사자가 장자못 전설을 얘기해 달라고 청하니, 황지의 장자못 전설을 얘기했다.

그 어느 부자의 집에 말이야. 그 중이 와가지구선 동냥을 달라고 하는데, 그 집 주인이 마굿간에서 마구를 치다 말고서 말이여,

“당신네 줄게 뭐 있느냐?”

고 말이여. 해서 동냥을 안 주었다 이거여, 안 주었다. 결국 자꾸 달라고 찌근거리니까 나중에 거름을 말이야 한 쇠스랑 말이지 가지고,

“이거나 가지고 가라.”

하니까, 중은 그래도 화를 안 내고 고만 돌아서 가는데 그 집 메느님(며느리)이 갖다 가만히 쌀을 가만히 퍼다 가지고 갖다 주니까 말여 그 중이,

“나를 따라 오라.”

고 말여.

“이 집에 당신이 있으면 죽을 테니까 따라 오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그 집에 얘기하고 중이 부인이 따라 가는데 가더니까 천둥치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안 돌아다 볼 수가 있어요. 돌아다보니까 그만 그 여자가 길 가에 돌부처로다가 그만 화해 버리고 말았대지요. 그리고 그 집은 연못이 됐는데, 그 기 옛날에는 컷대요, 못이. 그러나 지금은 가면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기(것이) 자꾸 줄어 들어 가지고 그 저 지금 황지 얘기가 바로 그거지요.

출처: 김선풍(1986:555), 『한국국비문학대계 - 강원도 영월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위에서 다루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 위의 설화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지켜야 할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3. 여성의 돌아봄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 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결점(욕망)의 존재인가?
 - ② 여성의 석화와 회생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 ③ 인생길의 수많은 분기점에서 어떤 결정이 올바른 걸까?
4. 실제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짧은 글로 표현해 보자.

3.3. 태도범주

국어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는 어떤 뜻을 담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해독될 때 비로소 하나의 의미가 된다. 우리는 서로 어울리며 언어활동을 하는 가운데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해석과 이해는 체험과 반응을 통해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심화되고 질서화됨으로써 국어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경험에 의해 자기 의미화를 거치면서 학습자에게는 정체성이 성립된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답게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의미화를 통해 지닐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태도’이다. 학습자는 교전에 대한 바람직한 향유 태도를 지닐 수 있고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렇게 태도는 언어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정체성(identity)’과 연관된다.

Allport(1978)에 따르면, 태도의 영역은 크게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³¹⁾ 이 중에서 ‘대상에 대한 행동 경향’이라 할 수 있는 행동적 요소로 인해 태도를 교육의 내용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육 차원에서 행동적 요소에 중점을 둘 경우, 태도의 개념은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일관되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으로 규정해볼 수 있다. 이는 태도의 학습성과 지속성에 주목한 결과이다.³²⁾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지식과 경험 범주에서 다룬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갈등 양상’에 대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활동일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

◎ 나만의 태도 형성하기

1. 부자와 며느리가 지켜야 했던 규범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규범과 갈등을 일으킨 부자와 며느리의 개인적인 욕망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3. 만약 자신이 부자나 며느리처럼 개인적인 욕망과 지켜야 할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의 태도를 다음에서 선택해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발표해 보자.

31) G.W. Allport(1978), 송대현 역, 『사회심리학』, 정음사, 참조.

32) Oskamp, Stuart & Schultz, P. Wesley(2005: 8-9), 『Attitudes and Opinions』, London : LEA, 참조.

	자신의 태도
(1)	개인의 욕망을 지켜야 할 규범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2)	지켜야 할 규범을 개인의 욕망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3)	개인의 욕망과 지켜야 할 규범을 상황에 맞추어 중요시할 것이다.

4. 친구들이 선택한 태도와 그 근거를 들어보고, 자신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5.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금기와 관련된 언어적 관습이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금기화소를 통해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3.4. 수행범주

수행은 언어의 속성 중에 해결해야 할 상황이나 일을 의미하는 과제(task)와 연관된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이 있으면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 있으며, 소통 상황이 발생하면 언어로나 행위로 그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 즉, 언어 구사 자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의 성격을 갖는다.³³⁾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다면, 수행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장자못」 설화에 내포하고 있는 금기화소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해 보는 활동이다. 수행의 차원은 앞에서 논의한 금기화소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는 원리적 측면과 이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해보는 실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원리적 측면에서는 지식 범주의 내용을 활용해서 「장자못」 설화에 존재하는 금기화소를 도출해 보는 귀납적인 활동을 제시해볼 수 있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금기화소의 언어형식이 실제 생활에서도 쓰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금기화소의 언어형식이 실제 생활에 쓰이고 있는 예로 다음의 방송 공익 광고를 들 수 있다.³⁴⁾

33) 김대행(2002b: 23),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참조.

34) 한국방송공사(KOBACO)에서 2006년에 제작한 방송 공익광고인 「음주와 운전」의 대본이다.

[표 7] 공익광고 「음주와 운전」

남1) 오늘 한번 달려볼까?

자~ 시동 걸고

S.E) (시동거는 소리)부릉~

남1) 3단 놓고, 달려~

S.E) (자동차 달리는 소리) 부우웅~

남1) 우회전~

남2) 좌회전입니다.

S.E) (자동차 방향 꺾는 소리) 깉~

남1) 어? 빨간불 들어왔네?

그래도 달려~

여) 설마, 운전하실 건 아니죠?

남1) 괜찮아, 괜찮아, 난 집이 요기야~

자, 오늘 끝까지 달려보는 거야~

S.E) (급브레이크, 자동차 사고 소리) 깉~ 쿵!

Na/자막) 어디까지 달리시겠습니까? 음주운전,

한 잔의 술로 당신이 끝날 수 있습니다.

Na/자막) 공익광고협의회

위의 [표 7]은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고자 2006년에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공익 광고의 대본이다. 여기에도 금기화소의 언어형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란다의 공식을 활용해 이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마란다 공식을 활용한 금기의 언표화 과정

·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QS	음주운전을 하면,
QR	당신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
FS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FR	당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금기의 언표화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음주운전이 불러올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근거로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주고 금지나 그것과 관련된 기의를 일으켜 이를 못하게 하는 언어표식이다. 또, 조건절의 행위(QS)가 결과절의 부정적인 전망(QR)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라는 금지문형으로 바뀌어 나타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금기화소가 방송의 공익 광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이 같은 원리를 도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어 활동의 측면에서 활용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한 예로 학습자들에게 방송 광고와 설화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게 하고, 설화에 나타나는 금기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익 광고를 제작해 보게 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금기를 다루고 있는 광고는 개인의 욕망과 규범 간의 갈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구술과 연행의 특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설화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⁵⁾ 학습자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금기를 다루고 있는 광고들이 우리 고전에 나타나는 금기어의 표현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금기화소를 지닌 설화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행 범주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35) 이야기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구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 이야기가 개연성 있는 허구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연행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수행 범주의 교육 내용

◎ 원리

부자와 며느리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금기화소를 다음의 조건에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 부자 - 금기 :

상황, 조건절의 행위	
조건절의 전망	
대응 행위	
대응 행위의 결과	

- 며느리 - 금기 :

상황, 조건절의 행위	
조건절의 전망	
대응 행위	
대응 행위의 결과	

◎ 실제

다음은 텔레비전 광고의 한 장면이다. 광고 영상을 보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장면 해설 : 모기업의 라면 광고이다. 이 광고는 음식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금기문화를 깬 것이다. 여자는 길바닥에서 남자가 떨어뜨리고 간 라면을 차지하기 위해 슬그머니 그것을 깔고 앉는다.

1. 위의 광고 장면에 나타나는 금기화소를 상상해 보고, 금기의 정의와 특징에 맞추어 다음 표에 정리해 보자.

· 금기 :

상황, 조건절의 행위	
조건절의 전망	
대응 행위	
대응 행위의 결과	

2. 주변의 언어 현상 중에서 금기화소를 다룬 사례를 찾아보고, 수집한 자료가 고전에 나타난 금기화소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 보자.

3. 위의 활동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고전에 나타난 금기화소를 활용한 공익 광고를 다음 단계에 맞추어 모듈별로 제작해 보자.

- ① 공익 광고의 주제 선정하기
- ② 공익 광고에 사용할 고전 자료 수집하기
- ③ 공익 광고 제작하기
- ④ 제작 후 검토하기
- ⑤ 모듈별 발표하기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장자뭇」 설화의 교육 내용을 지식, 경험, 태도, 수행 영역의 차원에서 고찰해보았다. 고전에 나타난 금기화소를 지식, 경험, 태도, 수행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내용화하는 일은 학습자가 사회 규범 또는 일상의 언어 관습과의 갈등을 통해 세상에 대한 겸손한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 일인지 성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금기의 언표화 과정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네 삶의 문화적 원형에 대한 언어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문화적 원형을 이해하고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고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고전 텍스트를 넘어 사·공간적으로 오래된 텍스트와 현대의 독자가 맺고 있는 관계 양상을 기반으로 매개되는 해석 작용태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고전에 나타난 다양한 언어형식 내지 관습으로 형성된 말들은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화소(motif)가 되는데, 이러한 화소에 나타난 언어형식의 개념을 습득하고, 언표화되는 과정을 자기 삶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일은 전통 문화의 계승 및 창달이라는 국어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기의 언어를 모티브로 한 고전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네 삶 속에서 다양한 언어적 형태로 존재해오는 언어 관습들을 주체와 관련지어 가르치는 일은 고전 교육의 지평을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지금·여기의 장(場)’으로 확장해내는 작업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연구는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 유산을 능동적으로 계승 및 창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서 나름의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금기화소를 중심으로 한 「장자뭇」 설화의 교육 내용 구성을 통해 고전 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의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실체가 마련된다면, 이를 제대로 구안하기 위해 교육 텍스트 목록의 상세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고전 교육의 실체가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수 학습 과정을 구안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목록을 상세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금기 화소를 내포하며 교육적 의의를 지닌 텍스트를 선별하고 유목화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지면 관계상 추후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5].
- 교육과학기술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 김대행(1997), 「국어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2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대행(2002a), 「국어교과학의 과제」, 『청람어문교육』제25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김대행(2002b),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선자(1999), 「금기와 위반의 심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장자못 전설과 함호(陷湖) 전설을 대상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11호, 중국어문학연구회.
- 김성배(1975), 『한국의 금기어·길조어』, 정음사.
- 김혜정(2009), 「<장자못 전설>의 전파력 연구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 박인기(1998), 「독서 환경의 변화와 고전(古典)」, 『독서연구』19, 한국독서학회.
- 박정세(1996), 『성서와 한국민담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 송효섭(1999),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 신동훈(2007),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 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제33집, 비교민속학회.
- 심영택(2004),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국어교육학연구』제21집, 국어교육학회.
- 윤여탁(1998), 『시 교육론 II : 방법론 성찰과 전통의 문제』, 서울대 출판부.

- 엄은열(2002), 「고전문학의 교육적 대상화에 대한 연구 : 문화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제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오정미(2015), 「장자못 설화 연구 -여성의 ‘돌아봄’의 의미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 장덕순·조동일·서대식·조희웅(2006), 『구비문학개설』, 개정판, 일조각.
- 장장식(1994), 「풍수설화에서의 금기 원리와 상징적 의미 : 풍수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4, 한국민속학회.
- 전한성(2008), 「이미지 활용을 통한 고전시교육의 내용구성 연구」, 『국어교육』제126호, 한국어교육학회.
- 정혜승(2008), 「문식성(literacy)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제26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조희정(2004), 「고전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 : 근대적 변화 양상의 검토를 통해」, 『국어교육학연구』21, 국어교육학회.
- 조희정(2006),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119, 한국어교육학회.
-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 G.W. Allport(1978), 송대현 역, 『사회심리학』, 정음사.
- J. G. Frager(1977), 장병길 역, 『황금가지』1, 삼성출판사.
- Claude Lévisrauss(1963), Structural Anthropology, New York : Penguin Books.
- E. Maranda & P. Maranda(1971), Structural models in folklore and transformational Essay, The Hague : Mouton.
- Oskamp, Stuart & Schultz, P. Wesley(2005), Attitudes and Opinions, London : LEA.

【Abstracts】

A study on content of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of 「Jangjamot」 Tale through ‘taboo motif’

Jeon, Han-sung · Min, Ji-hoon

This study is to arrange the content of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targeting taboo motif.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goal and significance of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targeting taboo motifs. Then, afte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lassic works and considering the meaning of taboo motif, the importance of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was drawn relating to th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inally, the content of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targeting taboo motifs was systemized by knowledge, performance, experience, and attitud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knowledge, activities by which learners can understand the concept and traits of taboo motif in classic works are provided through forms of taboo language. For performance, some activities are recommended for learners to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verbalizing of taboo motifs in the legend ‘Jang-ja Pond’ and applying them in a real world. For experience, activities that express the learners’ own experience relating to conflict between desire of human beings and social norms are drawn. For attitude, activities giving the opportunities that learners can set their own attitude about the conflict. All of those activities will be helpful for learners to reflect the attitude and perspectives of life through conflicts of interests with the aspects of knowledge, performance, experience, and attitude. It will eventually fit

into th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is to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heritage.

Key words : taboo motif, classic works, classic literature education, content theory, knowledge, performance, experience, attitude

이 논문은 2017년 5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6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6월 2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